[UCI]I804:24011-200000238505

2009년 8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河西 金麟厚의 學問과 出處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유 병 연

河西 金麟厚의 學問과 出處

Haseo Kim In-Hu's Learning & Obtaining and Retiring from the Public Office

200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유 병 연

dCollection @ chosun

河西 金麟厚의 學問과 出處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9년 0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유 병 연

dCollection @ chosun

유병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성 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숙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종 범 인

2009년 0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dCollection @ chosun

목 차

ABSTRACT ii

Ⅰ. 머리말 1

Ⅱ. 생애와 학문관 4

1. 생애 4

2. 공부와 학문관 8

Ⅲ. 사회적 실천과 '출처' 15

1. 기묘사림 계승운동 15

2. 출처와 교우 18

3. 교육활동 27

Ⅳ. 맺음말 34

참고문헌 37

dCollection @ chosun

ABSTRACT

Haseo Kim In-Hu's Learning & Obtaining and Retiring from the Public Office

Byung-Yeon Yoo
Advisor : Prof. Jong-bum Lee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he 16th century when Hungupa politically opposed to Sarimpa, a few massacres of scholars occurred through which neo-Confucianism of Joseon period was organized. Other Confucian scholars including Kim, In-who who was influenced by Ki-myo-sa-rim retired in local areas to evade political chaos and were engaged in intensive research on Confucianism. So, great scholars like Lee Hwang appeared at that time and Kim, In-Who was also a great scholar who was respected by other Confucian scholars.

Confucian scholars who inherited academic pursuit of Kimyosarim considered that a study on the prince should be properly developed to realize perfect politics. So they got interested in the 『Great Learning』 which was its theoretical base. Kim, In-Who read it more than a thousand times for his whole life. He suggested "Theory of Cultivation"

dCollection @ chosun

like a ladder by inheriting "Theory of Cultivation" developed by Chu Hsi. He suggested that we had to learn basic knowledge before we reached higher level and adhered to this principle strictly when he taught his students.

Judging that attitudes and qualifications of King Myeongjong and ministers who grasped political power since Elsasahwa(a massacre of scholars in the year of Elsa) were not appropriate, many scholars retired. Kim, In-Who was also dedicated to teaching junior students. When he encountered sad and miserable things in his teaching, he drank and wrote poems. He pretended to be insane to protect himself , depending on alcohol as Kija pretended to be insane and became a servant to protect himself. To protect himself means to protect the country as well as to protect justice and fidelity, from which we can feel his true intention to protect the base of his country.

dCollection @ chosun

Ⅰ. 머 리 말

이 논문은 성리학의 '조선화' 과정인 16세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河西 金麟厚(1510~1560)의 핵심사상인 主敬論과 中和論의 형성과정이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외척권신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사상이었음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학문과 사상이 시대와 호흡하였던 교유와 교육활동의 소산이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文廟에 配享된 東國十八賢 가운데 유일한 호남 사림이기도 한 김인후는 당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 일찍이 安邦俊은 學問·操行·節義·文章을 겸비한 眞儒로 평가하였다.[1] 오늘날 김인후를 이해함에 있어서 떠올리는 尤庵 宋時烈(1607~1689)이나 君師를 자임한 正祖의 평가도 안방준의 평가를 받아들인 것이었다.[2]

김인후에 연구는 상당한 분량에 이른다. 그러나 초기 연구는 1600여 편이나 되는 시문 때문에 문장가 혹은 시인으로 이해하고 그의 학문이나 인품을 칭송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3] 근래에는 김인후의 성리사상의 특징과 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4] 한편 16세기 사림정치의 성립과정에서의 김인후의 역할을 다룬

---

1) 安邦俊,『隱峯全書』권4,「竹川朴先生行狀」"噫 吾湖南素號文獻之地 自麗末至于本朝 以學名世者唯金河西 奇高峯 李一齋 柳眉巖及我先生而已 河西之學問操行 節義文章 卓乎其不可及." 참고로 문묘에 배향된 동국 18현을 배향순으로 보면 雨堂 薛聰, 孤雲 崔致遠, 晦軒 安裕, 圃隱 鄭夢周, 寒暄堂 金宏弼, 一蠹 鄭汝昌, 靜菴 趙光祖, 晦齋 李彦迪, 退溪 李滉, 栗谷 李珥, 牛溪 成渾, 沙溪 金長生, 尤菴 宋時烈, 同春堂 宋浚吉, 玄石 朴世采, 河西 金麟厚, 重峯 趙憲愼, 愼獨齋 金集 등이다.

2) 宋時烈,『宋子大全』권 154,「河西金先生神道碑銘」"國朝人物道學 節義文章 忒有品差 其兼有而不偏者無幾矣 天祐我東 鍾生河西金先生 則殆庶幾焉.";『正祖實錄』권44, 20년 6월 24일(무술); 정조,『弘齋全書』권171, 인물(1),"金河西 學問文章 迥出當世 見幾於急流 得爲元祐完人 其節義之大 出處之正 罕與爲比."

3) 김인후의 문학정신을 잘 알려주는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박준규,「河西 金麟厚와 그의 詩文學」,『錦湖文化』 제18집, 금호문화재단, 1985.
정익섭,「湖南歌壇에서의 河西 金麟厚의 位置」,『東洋學』 제17집,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1987.
하서 기념회 편,『河西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1-3, 河西紀念會 (1994, 2000, 2005).
조기영,「河西詩學과 湖南詩壇」, 국학자료원 1995.
_____,「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硏究 : 道學的 世界認識과 詩的範疇」, 아세아문화사 1994.

4) 김인후의 사상에 대한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안진오,「성리학의 발전과 호남성리학의 특징」,『錦湖文化』1989년 10월호, 1989.

dCollection @ chosun

정치사적 관점의 연구도 주목된다.[5)]

16세기는 勳舊와 士林이 지배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연이은 士禍로 인해 사림들은 중앙에서 밀려 지방에 隱居하게 되고, 성리학의 이론 탐구와 후학양성에 몰두하게 된다. 김인후도 仁宗의 昇遐 이후로는 전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연구와 제자양성에 전념한다. 明宗 때의 戚臣들이 계속해서 관직을 除授하지만 끝까지 손을 잡지 않는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우선 제2장에서 世系와 年譜를 통해 그의 생애를 살펴보고,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王道政治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김인후는 어디에서 찾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 당시 사림들은 왕도정치를 성리학적 이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김인후가 주장한 학문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첫째, 기묘인사들과 밀접한 관계였던 김인후가 기묘사림들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김인후는 인종 승하 이후 전혀 관직에 나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出處를 보인 이유와 은둔 후 어떤 사람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었고, 이러한 인적관계를 맺은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인

하서 기념회 편,『河西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1-3, 河西紀念會 (1994, 2000, 2005).
최근덕,「河西의 學問的 淵源과 性理學的 位置」, 『河西 金麟厚의 道學과 文學思想』, 광주광역시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5.
고영진,「16世紀 禮學과 河西 金麟厚의 位置」, 『河西 金麟厚의 道學과 文學思想』, 광주광역시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5.
윤사순,「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최영성,「하서 김인후의 學問과 出處觀」, 『동양고전연구』12, 1999.
서경요,「하서 김인후의 천명도 구조와 성리학 연구」, 『동양철학 연구』28, 2002.
오병무,「하서 김인후의 性理哲學」, 『동양철학연구』36. 2004.
_____,「河西 金麟厚의 性理哲學 異端, 異說에 대한 批判」, 『全羅文化硏究』 5, 1988.

5) 정치사 측면에서 김인후의 사상과 활동을 연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진웅,「仁宗昇遐와 金河西 節義」, 명성출판사, 1995.
민현구,「16세기 朝鮮의 士林政治에 대한 一考察」,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2, 하서기념회, 2000.
이태진,「하서 김인후의 시세계에 나타난 소빙기 현상과 천명사상」,『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2, 하서기념회, 2000.
백승종,「16세기 조선의 사림정치와 김인후 : 비정치적일상의 정치성」,『진단학보』92, 2001.

dCollection @ chosun

후가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교육방법과 제자들에게 전수하고자 했던 가르침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많은 시를 지은 문장가로서의 김인후가 아닌 성리학의 진리를 터득한 眞儒로서의 김인후를 밝히고자 한다. “영남의 퇴계, 호남의 하서”라 할 정도로 당시 이황과 쌍벽을 이룰 만큼 巨儒였던 김인후의 본모습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16세기 조선 사회의 사림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dCollection @ chosun

Ⅱ. 생애와 학문관

1. 생애

河西 金麟厚는 1510년(중종 5년) 7월 19일 전라도 長城縣 大麥洞里(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蔚山으로 자를 厚之, 호는 河西 또는 湛齋라 하였다.[6]

김인후는 어려서부터 形容이 단정하고 風神이 빼어나 보통 아이들보다 크게 뛰어났다.[7] 5세 때 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수학하였고, 6세 때는 하늘을 운으로 하는 「上元夕」이라는 시를 지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8세 때는 趙光祖의 숙부였던 全羅監司 趙元紀(1457~1533)가 김인후의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전주로 불러 함께 聯句를 지었는데, 그 실력이 대단하여 장성신동 천하문장이라 말할 정도였다.[8] 9세 때는 服齋 奇遵(1492~1521)이 고향에 내려오는 길에 김인후의 이름을 듣고서 데려다 보고, "참으로 기특한 아이다. 마땅히 우리 세자의 신하가 되겠다."라며 칭찬하였다. 후에 서울에 올라간 기준은 대궐에서 받은 內賜筆 한 자루를 김인후에게 선물로 주었다.[9]

10세 때 全羅監司로 부임한 慕齋 金安國(1478~1543)이 김인후의 이름을 듣고 몸소 들러서 학식을 시험해 보니, 그 실력이 대단하여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였다. 그 후 김인후가 김안국을 찾아가 『小學』 배우기를 간청하여 이때부터 『소학』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당시 초학자가 학문의 길에 들어서는데 가장 중요시된 성리학 입문서가 『소학』이었다. 바로 이 『소학』을 김안국으로부터 배우게 된 것이다. 이 때 김인후가 講問을 게을리 하지 않으니 "이는

---

6) 『國譯河西全集』下, 附錄 卷3, 年譜, p.321. 앞으로 『國譯河西全集』을 인용할 때는 『河西全集』으로 표기하겠다.
7) 『河西全集』下, 附錄 卷1, 行狀, p.186.
8) 『河西全集』下, 續編外錄 卷1, 年譜別本, p.711.
9) 『河西全集』下, 附錄 卷3, 年譜, p.325.

dCollection @ chosun

나의 小友이다. 참으로 三代상의 인물이구나”라며 칭찬하였다.[10] 이러한 인연은 김인후가 1540년(중종 35년) 10월 別詩文科에 응시했을 때 김안국이 讀卷官으로 詩策을 출제하게 된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김인후는 합격하게 된다.[11] 14세 때는 여흥 윤씨와 혼인하였다. 여흥 윤씨는 通訓大夫 鎭安縣監 任衡의 딸이자 장원 급제한 達莘의 손녀였다.

18세 때는 아직 스무 살도 안 된 나이였지만 벌써 四書·五經·諸子 및 史策에 이르기까지 깊이 꿰뚫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程顥·程頤·朱熹가 주장한 성리학은 물론 천문지리와 기예에 통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 느껴 좋은 스승을 찾던 중, 己卯士禍로 인해 同福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新齋 崔山斗(1483~1536)의 명성을 듣게 된다. 이 때 최산두는 학문이 독실하기로 소문이 나있었다. 그리하여 술을 좋아하는 최산두를 위해 약주를 들고 찾아가 수학하게 된다. 얌전하고 성실한 김인후의 모습에 최산두는 크게 탄복하여 그를 매양 ‘秋水氷壺’라고 칭찬하였다. 비록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의 가르침이었지만 김인후에게는 얻은 것이 많았다.[12] “屈原의 辭賦를 익혀, 스물다섯 편 그 글이 심중에 역력”하였다.[13]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1531년(중종 26년) 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된다. 그리하여 그 다음해 최산두를 찾아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5년 뒤에 최산두는 作故하게되고, 스승의 죽음을 슬퍼하며 加麻하였다.

최산두에게 수학할 무렵에 나주목사를 사직하고 광주에 와 있던 訥齋 朴祥(1474~1530)도 찾아뵈어 학문에 폭을 넓혀 갔다. 박상은 김인후의 글재주를 높이 평가해주었고, 김인후는 박상을 “나의 鍾子期”라 말하며 항상 흠모하였다.[14]

19세 때는 드디어 서울로 올라갔다. 칠석날 成均館에서 실시된 백일장에

---

10) 『河西全集』下, 續編外錄 卷1, 年譜別本, p.712.
11) 『河西全集』下, 續編附錄, 別試策題, p.701.
12) 『河西全集』下, 附錄 卷3, 年譜, p.327.
13) 『河西全集』下, 卷12, 祭崔新齋文, p.101.
14) 『河西全集』上, 卷2, 贈林士遂, p.169.

dCollection @ chosun

참가하여「칠석부」라는 시를 지어 장원이 되었고, 22세 때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에 뽑혔는데 花潭 徐敬德(1489～1546), 錦湖 林亨秀(1504～1547), 大谷 成運(1497～1579), 休庵 白仁傑(1497～1579), 林塘 鄭惟吉(1515～1588) 등이 同榜이다. 이들과 辛卯年蓮榜契를 맺어 친분을 이어나가기도 한다.[15]

24세 때는 성균관에서 退溪 李滉(1501～1570)과 더불어 강학하였다. 당시 기묘사화를 겪은 후라 士氣가 沮喪되어 유생들이 도학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하며 학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김인후는 이황과 뜻이 맞아 사림의 학풍을 조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 토론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래서 이황은 후에 "더불어 어울려 지낸 이라고는 오직 김하서 한 사람일 따름"이라 말하기도 하였다.[16]

31세 때 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承文院 副正字가 되었다. 이때 함께 급제한 林亨秀(1504～1547), 金若默(1500～1558), 金希參(1497～1560) 등이 庚子年文科同榜이다. 이들 중 김약묵은 金希奭의 아들로 김인후와는 손위 동서지간이다. 둘은 서로 통하는 것이 많아 김인후가 김약묵의 집인 태인 고현내에 자주 방문했었다. 같은 시기에 과거준비를 해오다 나란히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문과동방이 된 것이다. 장인이었던 尹任衡이 두 사람의 급제를 축하해 주기위해 恩榮宴을 베풀어 주었는데 송순도 연회에 참석했었다.[17]

32세 때는 김안국의 추천으로 湖堂에 뽑혀 賜暇讀書를 하게 되는 특전을 부여 받았다. 이 때 東湖에서 함께 賜暇讀書한 이들과 계를 맺었다.[18] 그해 10월에는 弘文館 正字 겸 經筵典經 春秋館 記事官이 되었다. 1541(중종 36년)은 중앙 관청에서 근무하던 김인후와 다른 진사동방들이 진사에 오른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에 蓮榜同年辛卯曹司契會를 열어 정유길, 민기, 남응운, 이택, 이추,

---

15) 『河西全集』中, 卷10, 辛卯蓮榜曹司契會軸, p.523.
16) 『退溪全書』言行錄 卷1, 類篇, "退溪所與交遊者 唯河西一人而已."
『河西全集』下, 續編附錄, 敍述, p.646.
17) 『河西全集』下, 續編外錄 卷1, 年譜別本, p.561.
18) 『河西全集』下, 續編附錄, 東湖,契會圖錄, p.698. 동호계회도록에 있는 명단을 보면 河西 金麟厚, 錦湖 林亨秀, 退溪 李滉, 菊磵 尹鉉, 樂山 南應龍, 觀物齋 閔箕, 汲古齋 李洪男, 寓庵 金澍, 靜存齋 李湛, 松潭 李元祿, 嘯皐 朴承任, 伊齋 盧守愼 등 12명이다

dCollection @ chosun

윤옥, 김인후 등 모두 7명이 계를 맺었다.[19] 이와 더불어 그 당시 홍문관에 있던 사람들끼리 계를 맺기도 하였다.[20]

33세 때는 弘文館 著作으로 승진하게 되고, 34세 때 弘文館 博士 겸 世子侍講院 說書에 임명됨으로써 세자의 스승, 즉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인종의 스승이 되었다. 인종은 여러 스승 가운데서도 특히 김인후를 믿고 따랐다. 그래서인지 인종은 김인후에게 『朱子大全』 한 질과 손수 그린 墨竹圖 한 폭을 하사하여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다.[21] 그 해 6월 弘文館 副修撰 겸 經筵 檢討官에 오른 뒤 7월에 경연 석상에서 己卯士禍 때 억울하게 희생된 사림들을 위하여 그 伸寃을 호소하는 弘文館 箚子를 올리기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8월에 노부모 봉양을 구실로 지방직을 청하여, 12월에 玉果縣監에 임명되었다.

그 다음해 11월에는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게 된다. 명나라 사신이 국상의 弔使로 오게 되어 한때 製述官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일시 상경하여 보니 인종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議藥을 자청하였지만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결국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승하는데, 옥과현감 재임 중 이 소식을 들은 김인후는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고 말았다. 그리하여 옥과현감마저 사퇴하고 장성으로 낙향해 버렸다. 38세 봄에 成均館 典籍, 가을에 工曹正郎에 임명되나 병을 핑계로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는다. 그 해 全羅都事에 임명되지만 바로 파직 당하게 된다. 술이 심하고 소활한 사람이어서 번잡한 도의 도사는 될 수가 없다는 사헌부의 건의가 있어서였다.[22]

김인후는 인종이 세자였을 때 인종의 인품과 학식이 장차 德治를 베풀만한 임금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으나, 즉위 후 갑작스런 인종의 죽음

---

19) 『河西全集』下, 續編附錄, 蓮榜同年辛卯曹司契會圖錄, p.699.
20) 『河西全集』下, 續編附錄, 湖堂修稧錄, p.696~697. 호당수계록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는 河西 金麟厚, 艮齋 崔演, 十省堂 嚴昕, 秋波 宋麒壽, 松齋 羅世纘, 菊磵 尹鉉, 竹溪 任說, 退溪 李滉, 錦湖 林亨秀, 寓庵 金樹, 尙德齋 鄭惟吉, 汲古齋 李洪男, 好學齋 閔箕 등 13명이다.
21) 백승종. 「16세기 조선의 사림정치와 김인후 : 비정치적일상의 정치성」. 『진단학보』92. 2001. p.102.
22) 『明宗實錄』권6, 2년 윤9월 17일(을미)

dCollection @ chosun

은 그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꿈을 잃은 김인후는 한동안 술로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향리에 묻혀 독서를 하거나 후진들과 講學을 하며 후학교육에 전념하다 1560년(명종15년)에 숨을 거두게 된다. 임종 시에도 인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죽으면 옥과 현감 이후의 관직은 쓰지 말라" 이렇게 유언하고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23]

2. 공부와 학문관

16세기는 사림이 훈구와 지배권을 두고 대립하다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였다. 즉 연산군 때 戊午士禍·甲子士禍로 크게 위축되었던 사림이 中宗反正 이후 새롭게 등장하면서 趙光祖(1482~1519)를 중심으로 한 己卯士林들이 점차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기묘사림은 중앙정치에서는 『大學』에서 제시된 도덕정치를 구현하고, 향촌사회에서는 『小學』에서 제시된 향약적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 하였다. 무엇보다도 治人의 기능적인 것에 앞서 修己의 자아완성을 통한 의리 및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조광조는 경연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 사람들이 말하기를 '후세의 治道가 점점 낮아져서 옛날처럼 될 수 없다' 합니다. 과연 이 말과 같다면 지금은 禽獸가 될 것이고 다시 사람의 이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三代의 정치를 지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먼저 임금 자신의 덕을 닦고 나서 그 방법을 사물에 옮겨 행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감화하여 자연 덕을 닦을 것입니다. 나의 덕은 닦지 않고 단지 사물에만 선을 실시한다면 아무리 실시를 잘한다 할지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24]

---

23) 『河西全集』下, 附錄 卷3, 年譜, p.347.
24) 『中宗實錄』권31, 13년 1월 27일(정묘).

dCollection @ chosun

조광조는 군주가 통치에 앞서 수신을 통해 덕을 닦는 일에 힘써야만 왕도정치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신에 대한 강조는 『心經』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帝王學의 한 분야를 형성하였다.[25] 至治를 위해서는 정치의 근본인 임금이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심경』을 통해서 道心을 함양하고 人心을 경계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묘사림들이 『심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26]

기묘사림들은 왕정에 있어 군주 마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임금도 安人을 위한 修己가 필요하다며 지치주의에 입각한 王道政治를 성리학적 정치 이상으로 삼았다.[27] 이에 따라 그들은 중앙정치에서 君主聖學論과 君臣共治論을 강조하였다.[28] 군주성학론은 군주가 마음을 잡고 현인의 경지에 이르러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국왕의 철저한 수양을 요구한 것이다. 군주성학론은 성리학적인 왕도정치의 구현이 일차적으로 군주의 도덕적 능력에 달려 있다는 성리학적인 군주관이었으며, 연산군대의 파행정치와 사화를 거치면서 군주의 타락상을 체험한 사림파로서는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국왕 혼자만의 힘으로 이상적인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신공치론도 강조하였다. 대신은 군주를 보필하여 바른 정치를 이끌어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의 자격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왕을 올바르게 보좌할 수 있는 제도인 賢良科를 주장하였다.[29] 현량과는 덕행과 재주를 지닌 사람을 薦擧하여 別試를 거쳐 관료로 등용하는 제도이다. 군주성학론이 군주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군주의 수양을 요구하는 주장이라면, 현량과는 군주를 올바르게 보필할 수 있는 신하를 등용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군주성학론과 군신공치론으로 대표되는 기묘사림의 정치론은 현인의 경지에 이른 군주를 보필하여 왕도정치를 구현함으로써 성리학적인 이상 정치를 펼치고자

25)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p.123.
26) 김항수, 「朝鮮 前期 『心經』의 이해와 보급」, 『한국문화』 18, 1996, p.193~196.
27) 박성봉,「河西의 生涯와 思想史的 位相」, 『河西金麟厚의 思想과 文學』2, 河西紀念會, 2000.
28) 김용흠, 「조선전기 훈구·사림의 갈등과 그 정치사상적 함의」, 『동방학지』 124, 2004, p.306.
29) 현량과에 대해서는 이병휴, 「현량과 급제자의 성분 : 현량과 연구 첨보」 『대구사학』 12·13, 1977. ; 에드워드 와그너(이훈상 옮김), 「1519년의 현량과」 『역사와 경계』 42, 2002. 참조.

dCollection @ chosun

함이었다.[30]

기묘사림의 학문을 계승한 사림들은 그 어떤 좋은 개혁도 군주가 현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학문인 聖學, 즉 帝王學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론적 기반이었던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31] 성리학에서는 군주에게 예와 의에 의한 도덕성을 요구한다. 예와 의를 잘 알아서 정치하는 군주는 賢君이 되고, 예와 의를 잘 알지 못하는 군주는 어두운 昏君이 되며, 예와 의를 부정하는 군주는 暴君이 된다. 따라서 군주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하는데, 바로 『대학』이 군주의 도덕성을 기초로 한 정치를 지향하는 경서인 것이다.

김인후도 이와 같은 시대에 성장하였고, 특히 기묘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였기에 자연스럽게 『대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32] 그리하여 김인후가 평생 정력을 기울여 천 번이 넘게 읽은 경서가 바로 『대학』이었다. 朱子가 평생을 들여「大學章句」,「大學或問」,「大學講義」 등으로 이론을 정립시킨 『대학』을 자신의 학문방법의 중심 경전으로 삼았다. 심지어 자신의 꿈에 「大學或問」을 볼 정도였으며,[33] 주자의 「大學講義」에 주목하여 체제나 내용과 독서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분석하여 「大學講義跋」를 만들기도 하였다.[34]

김인후는 항상 말하기를 "한 권의 책으로서 格物・致知・誠意・正心의 功力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效驗에 있어 本과 末이 자세히 갖춰져 있고 조리가 분명하니, 학자가 이것을 버리면 규모를 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35] 또 『대학』은 體用이 함께 갖춰져 있고 條理가 정연하니 이를 읽지

30) 김항수, 「조선 전기의 성리학」, 『한국사』 8, 한길사, 1994, p.256~257.
31)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p.161.
32) 김인후가 지도를 받았거나 접촉이 있었던 대표적인 기묘인사로는 服齋 奇遵, 新齋 崔山斗, 靈川子 申潛, 圭庵 宋麟壽, 企齋 申光漢, 幾齋 安處順, 俛仰亭 宋純 등이 있다.
33) 『河西全集』中, 卷6, 夢看一書如『大學』或問者, 其大意可記者曰 :人之所以爲人者, 以其有明德也. 又有當畏四畏之語, 四畏, 夢認天知神知子知我知之說, 而亦不貼畏字, 思之不得而覺, p.106.
34) 『河西全集』下, 卷11, 大學講義跋, p.70~74.
35) 『河西全集』下, 附錄 卷1, 家狀, p.171.

dCollection @ chosun

않고는 道로 나아갈 수 없으며,『대학』을 읽지 않고 다른 경서를 보는 것은 터를 닦지 않고 먼저 집을 지어 일시적으로만 아름답게 꾸미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36]『소학』을 먼저 읽어 입신하는 근본을 쌓고, 다음으로『대학』을 읽음으로써 학문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문적 기초를 다져 놓고서 『論語』·『孟子』로 精微를 다하고, 『中庸』에 집중하여 그 歸趨를 다하며, 六經에 도달하여 그 變通을 마치게 되면, 천하의 글을 읽고 천하의 일을 행하여 立身揚名함으로써 그 孝를 끝마치고도 넉넉히 힘이 남을 것이라 하였다.[37] 따라서『小學』→『大學』→『論語』→『孟子』→『中庸』→ 六經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공부하면 학문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고 문인들에게도 이 과정으로 가르쳤다. 이황도 김인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주자가 정한 순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며 김인후와 비슷한 독서 순서를 주장하였다.[38]

이는 주자의 공부론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행동의 근본이 바르게 되어 덕행을 독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자의 「大學章句」에 의하면, 三代의 법제가 정비된 이래 8세가 되면 王公부터 庶人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小學에 들어가 灑掃·應待·進退의 예절과 禮·樂·射·御·書·數의 글을 배우고, 15세에 이르면 천자의 元子·衆子로부터 公·卿·大夫·元士의 嫡子와 백성의 俊秀한 자에 이르기까지 大學에 들어가 窮理·正心·修己·治人의 道를 배웠다고 한다. 『소학』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재목을 준비하는 것이며, 『대학』은 그 터에 재목으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소학』과『대학』 두 단계의 공부는 그 순서를 바꾸거나 차례를 뛰어넘지 않고 점진적으로 공력을 쌓아나갈 때에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道를 완전히 통달하려면 『소학』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사다리의 계단과 같다고 하여 이를 '小學-大學 階

36) 『河西全集』下, 附錄 卷1, 行狀, p.190.
37) 『河西全集』下, 卷11, 孝經刊誤跋, p.68.
38) 김항수, 「16세기 사림의 성리학 이해 : 서적의 간행 편찬을 중심으로」, 『한국사론』7, 국사편찬위원회, 1981, p.167.

dCollection @ chosun

梯說’이라 한다.[39]

김인후의 사다리와 같은 공부론은 花潭 徐敬德(1489~1546)이 지은 「讀周易詩」를 보고, “성인의 말씀은 곧 천지의 道이니, 影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시에 김인후가 次韻한 내용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혼연한 전 덩이는 생이 있은 그 먼저라	渾然全體有生先
대화가 유행하여 물과 함께 받았으니	大化流行物共傳
대의는 괘를 만들어 변화를 밝히었고	羲畫推移明變化
문왕은 분석하여 인사·천리 증험했네	周經剖析驗人天
공부가극진해야 바야흐로 묘를 알고	工夫盡處方知妙
체인이 깊어 가면 현을 다시 깨친다오	體認深時更覺玄
형상을 세우고 말씀을 매어 말과 뜻이 지극하니	立象繫辭言意盡
오직 하면 장성께서 위편을 끊었겠소.[40]	憶曾將聖絶韋編

태극이 바로 무극이고, 理는 음양에 앞서 있으니 理가 氣에 앞서있는 것이라며 서경덕의 심학을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공부가 차례에 따라 극진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미묘함을 알게 되고, 體認이 심화되면서 深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함양해 나가는 방법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부는 계단 밟듯 선후가 있으니	次第工夫有後先
공문에서는 무얼 먼저 전하냐고 말한다	孔門曾說孰先傳
참된 앎은 보통 행실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眞知不外常行地
아래서 배운 것이 모두 위로 이르게 된다	下學無非上達天
성인의 적확하신 말씀조차 믿지 못해	未信聖人言的的
학자들은 공연히 아득함에 현혹되네.	飜愁學者惑玄玄

39) 박연호, 「주자학의 根本培養說과 조선 전기의 ‘小學’교육」, 『淸溪史學』2, 청계사학회, 1985, p.88~90.
40) 『河西全集』中, 卷10, 徐花潭讀易詩韻, p.579.

dCollection @ chosun

본원의 정미한 곳을 질러서 간다 하더라도 本源徑造精微處
간편을 덮어버릴 폐단을 어찌하리.[41] 末弊其如廢簡編

서경덕이 주장한대로 공부하게 되면 下學을 소홀히 하고 頓悟의 지름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말씀이 담긴 여러 경전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보았다.[42] 그리하여 순서를 뛰어넘어 깨우치는 돈오의 방법보다는 성인들의 인사와 천리를 기록한 경전을 통해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배워 나가는 '下學上達'의 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학상달'이란 말은 孔子가, "하늘을 원망하지 말며, 사람을 탓하지 말고, 아래로 배워서 위로 달한다."라고 한데서 나온 말이다.[43]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學'이란 글을 공부하는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인격의 수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래로는 인간의 사리를 배우고, 위로는 하늘의 도리에 통한다는 말이다.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이 불교나 노장사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유학만의 독특한 실천적 학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당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 유학의 하학상달적인 측면을 매우 중요시하였고, 김인후도 그 중 한사람이었다.[44]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제자들과 배우는 사람들에게 실천적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심상한 속에 도가 들어 있는데 道在尋常裡
사람이 찾지 않아 그게 병일세 人惟病不求
어버인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 親親與敬長

41) 『河西全集』中, 卷10, 徐花潭讀易詩韻, p.580.
42) 『河西全集』下, 附錄 卷3, 年譜, p.343.
43) 『論語』, 「憲問」 36장.
44) 유학의 하학상달적인 측면을 강조한 성리학자에 대한 연구는 이광호,「남명과 퇴계의 학문관 비교」,『동방학지』118, 2002. p.241~251. ; 사재명,「남명 조식 교육의 계승 : 실천성의 강조」,『남명학연구』19집, 2005. p.285~287. 참조.

dCollection @ chosun

요순 어찌 딴 길로 말미암으리.[45] 堯舜豈他由

성인의 道는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당연하면서도 평범한 일상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일상의 실천들을 통해 성인의 도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옛 성인들도 일상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구제하였음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모를 봉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사람의 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이다.

45) 『河西全集』上, 卷5, 示學者, p.731.

dCollection @ chosun

Ⅲ. 사회적 실천과 '출처'

1. 기묘사림 계승운동

당시 사림들은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이상사회의 근본이라 보고, 부패한 훈구세력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또 잘못된 역사가 있으면 그에 대한 비판을 가하여 과거사를 정리하고 화해하기 위한 역사운동을 추진하였다. 金宗直(1431~1492)의 「弔義帝文」이 어두운 과거를 추모하는 역사운동의 대표적인 글이라 할 수 있다.[46]

김인후도 벼슬길에 들어서자 무엇보다도 당시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싶었다. 1543년(중종 38년) 弘文館 副修撰 겸 經筵檢討官이었던 김인후는 7월 20일 경연에서 용기를 내어 다음과 같은 箚子를 올린다.

> ...동궁의 화재가 거의 하늘을 후끈거렸으며 열흘 이내에 災厄이 연첩하여 나타났으니 보고 듣는 사람치고 어느 뉜들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듣자온 바 사람의 일이 아래서 느끼게 하면 하늘의 道는 위에서 응한다 하였사온데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전하께오서 이 일을 당하시게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전하께오서 상기도 간사한 자들의 어진 이 무함한 정상을 깨닫지 못하시어 쾌히 뉘우침을 열어 보이지 않으시므로 조야의 사림들이 己卯의 寃枉을 민망히 여기지 않는 자 없으면서도 이제껏 본마음을 개진하여 죄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사뢰어 위로 전하에 疑貳의 일념을 풀어드리고 아래로 지하의 캄캄한 忠憤을 씻어 주지 못하니 사기가 퇴폐하고 타락된 것은 역시 이에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47]

동궁의 화재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기묘사화에 억울하게 희생된 선비들의 죄

---

46) 이종범,「佔畢齋 金宗直의 내면세계와 초기 사림파」,『동양한문학연구』28, 2009, p.23.
47) 『河西全集』下, 卷11, 弘文館箚子, p.1~8.

dCollection @ chosun

를 씻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종이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자 이틀 뒤인 7월 22일 경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

> ...기묘년 사람은 한때 한 일이 죄다 옳지는 못하나, 그 본심은 터럭만큼도 나라를 속인 것이 없는데도 마침내 무거운 죄를 입었습니다. 그 뒤에 죄 지은 사람 중에는 大逆不道하여 죽어도 죄가 남을 자라도 세월이 오래되어 혹 복직된 자가 있는데, 기묘년 사람은 오히려 上恩을 입지 못하니, 신은 홀로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 숭상하던 『소학』·『향약』 의 글도 모두 폐기하고 쓰지 않습니다...[48]

기묘년의 선비들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며 조광조 등을 복권 해 달라는 것과 『소학』과 『향약』은 양서이기 때문에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 김인후는 죽음을 무릅쓰고 조정의 금기였던 조광조 일파의 복권 문제를 들고 나선 것이다. 김안국과 최산두 등과 같은 조광조 일파의 지도아래에서 수학한 김인후였기에, 기묘명현들의 억울한 죽음을 역사적으로 바로잡아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연장하려 한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어두운 과거를 추모하는 역사운동은 "어찌 뒤를 염려하여 몸 보전하리. 종묘사직 눈앞에 망해 가는데 참아 보고 앉아서 구원" 하지 않겠다며 척신정치에 대한 현실비판으로 이어진다.[49]

...다시금 난신적자 발을 붙이어	復有亂賊之接迹兮
그들은 세자더러 불효라 하네	彼將謂子爲非孝
죄상을 도피하고 찬탈 다투며	紛逋誅而爭簒兮
제 마음 깨끗하다 내세우나니	言予心之皎皎
세자의 속마음을 누가 알아주리	夫孰察子之中情兮

48) 『中宗實錄』권101, 38년 7월22일(을축)
49) 『河西全集』上, 卷1, 弔比干辭, p.126.

dCollection @ chosun

아득한 저 하늘만을 쳐다볼 따름	但視天兮茫茫
심사가 산란하여 풀리질 않아	思蹇産之不釋兮
천년 아래 홀로 방황만 하네.[50]	獨千載而彷徨

김인후가 37세 때 지은 「弔申生辭」인데, 춘추시대 晉獻工의 태자 申生을 폐위한 驪姬를 인종을 몰아낸 문정왕후와 윤원형에 비유한 것이다. 또 윤원형을 포함한 척신들을 쥐에 비유하여 "오래 묵어 영리해져서 몇 해 두고 말썽을 사뭇 부리네. 막대를 고나 잡아 때려죽이니 어느 누가 너를 위해 불쌍"해 하지 않을 만큼 그들에 대한 분노감은 너무나도 컸다.[51]

김인후는 어두운 과거를 추모하는 역사운동의 일환으로 선조를 받들고 제사를 보존하기 위한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장성, 순창, 창평 일대의 향교에서 매년 春秋祭享을 올릴 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 "옛 사람은 實德을 존숭했는데 이 세상은 뜬 이름을 중히 여기네. 절 올리고 膰肉과 술을 받으니 봄가을로 노상 입는 聖靈의 은혜."라며 선조를 받드는 제사를 소중히 생각했다.[52] 선조라고도 할 수 있는 스승들을 받드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최산두가 1536년(중종 31년)에 돌아가시자 성균관에서 유학중이었던 김인후는 스승을 위해 가마하였고, 김안국이 1543년(중종 38년)에 돌아가시자 복을 입고 치재하며 挽詞도 지었다.[53] 물론 매년 기일에도 두 스승을 잊지 않고 치재하였다.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한 인종을 위해서도 매년 기일에 되면 장성 집 앞 남쪽에 있는 卵山에 들어가 한없이 통곡하고 돌아오곤 했다. 임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통곡하며 괴로워하였다. 이와 같은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시가 바로「有所思」이다. 이 시에서 인종의 죽음과 자신의 처지를 사랑하는 임과 사별한 것에 비유하여 인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인종의 승하이후 옥과현감마저 사퇴하고 향리로

50) 『河西全集』上, 卷1, 弔申生辭, p.134~135.
51) 『河西全集』上, 卷5, 壁間有鼠格而殺之, p.763.
52) 『河西全集』上, 卷5, 釋奠日作, p.674.
53) 『河西全集』中, 卷8, 挽慕齋金先生, p.349.

dCollection @ chosun

물러나 이후 일체의 벼슬을 모두 사양한 것과 매년 기일이 되면 난산에 들어가 통곡하고 돌아오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것은 인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김인후는 군신간의 의리를 소중히 생각하였다.

2. 출처와 교유

주자에 의하면 군신은 의리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의리가 맞지 않으면 떠나야 한다. 군주와 신하는 의리로써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군주가 의롭지 못하면 군주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54] 다시 말해, 군주가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면 간언을 해야 하고, 그것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하는 군주를 떠나는 것이 義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신윤리는 시기마다 군신 사이의 의리가 변화함에 따라 바뀌었다.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5세기에는 分數論的 군신윤리였다면, 16세기에는 義理論的 군신윤리가 새롭게 대두하게 된다.[55] 전자는 군주의 권위에 복종하여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군신존비의 분수를 의미하며, 후자는 출처의 마땅함에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군신의리를 의미한다. 이런 군신윤리의 변화의 원인으로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여러 사화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56] 趙憲(1544～1592)은 乙巳士禍가 일어난 직후 당시의 상황을 "성수침, 성운은 다 숨어 나오지 아니하고, 이황은 물러가 禮安에서 살고, 서경덕은 花潭으로 遯跡하고, 김인후, 조식, 이항은 幽棲하여 멀리 도망갔으니, 모두 乙巳의 화가 그들을 격하게 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57]

그 당시 군주인 명종과 권력을 잡고 있는 외척 권신들의 자격이나 태도가 義에

---

54) 『孟子集註』「萬章 下」, 齊宣王問卿, "君臣義合, 不合則去."
55) 이종범,「佔畢齋 金宗直의 내면세계와 초기 사림파」,『동양한문학연구』28, 2009, p.20.
56) 김훈식,「16세기 군신윤리의 변화와 출처론」,『역사와 현실』50, 2003, p.430~434. 김훈식은 사림세력의 성장으로 인해, 15세기의 명분론적 군신윤리에서 16세기의 출처론적 군신윤리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57) 『河西全集』下, 附錄 卷2, 敘述, p.242.

dCollection @ chosun

합당 않기에 隱士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부패한 척신정치로 인해 국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자 김인후는 「佯狂爲奴論」이란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보여준다.

> 獨夫 紂는 교만하고 사치하고, 음탕하고 안일하여 하늘도 싫어하고 사람도 지쳤으니 成湯의 수백 년 종묘사직이 장차 異姓에게 옮겨가게 되었은즉 할 말을 다하고 과감히 간하여 죽음이 있을 따름이며, 선조를 받들고 제사를 보존하여 떠나감이 있을 따름이거니와, 이미 죽지도 못했고 또 떠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면 진실로 마땅히 그 몸을 보전해야 하며 꼭 그 무익한 죽음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여 명분 없는 떠나감에만 급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58]

즉 군신 간에 의리의 실천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첫째 比干과 같이 과감하게 간언하여 죽는 것, 둘째 微子와 같이 선조를 받들고 제사를 보존하여 떠나는 것, 셋째 죽지도 떠날 수도 없는 처지에서는 箕子와 같이 그 몸을 보전하여 道를 지키고 義를 행하여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욕되고 천한 것은 내 몸 밖에 있고 도와 의는 내 몸의 안에 있는 것이니,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세울 뿐이요, 그 밖에 있는 것은 마땅히 순하게 받아야 할 줄 안다면 어디에 들어가서도 얻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그 사람의 내면에 도와 의가 존재한다면 천한 노예와 같은 처지라도 천하게 여길 수 없다고 하였다.[59]

그리하여 삶의 기로에선 김인후는 마침내 기자가 택했던 길을 선택한다. 무너진 도덕성 회복을 위해 중종에게 간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외척이었던 대윤과 소윤이 서로 대립하면서 알력다툼 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서울을 떠난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음을 느낀 김인후는 부모봉양을 이유로 옥과현감으로 내려왔다. 옥과현감에 제수 된 뒤, “인간이라 한 물이 천지를 어지럽혀 풍파가 넘실넘실 가로 질러 바다 되네. 구름 되다 비 되다 측량을 못 할래라 엎어진

58) 『河西全集』下, 卷12, 佯狂爲奴論, p.135~136.
59) 『河西全集』下, 卷12, 佯狂爲奴論, p.135.

dCollection @ chosun

배 위태함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하면서 불안한 현재 상황을 걱정하였다.[60]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걱정은 현실이 된다.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을사사화가 일어난 것이다. 김인후의 절친한 벗들이 유배가거나 죽임을 당하였다. 김인후는 옥과현감마저 사퇴하고 장성으로 낙향하였다. 그 후 成均館 典籍, 가을에 工曹正郎에 임명되나 병을 핑계로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는다. 全羅都事에도 임명이 되지만 술을 심하게 하여 바로 파직 당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이 손에 잡힐 리 만무할 것이고, 이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척신정치와 손을 잡기 싫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인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인후와 東湖書堂에서 賜暇讀書한사이였던 鄭惟吉(1515~1588)이 參贊官이었을 때 경연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왕에게 아뢰었다.

> 신이 그 사람과 같이 있어 보았는데, 그는 기국이 迂闊하고 또 술을 좋아하여 일을 맡겨 직무를 보게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글을 잘 지었고 천품이 매우 고매하여 임용할 만한 인재였습니다만, 그 뒤에 喪事를 당하고 병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몹쓸 병이 들었기 때문에 상께서 命召하여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洪曇에게 들으니, 그가 사는 집이 매우 곤궁하여 비와 바람을 가리지 못하고 처자가 의탁할 데가 없으며, 서울에 왕래할 적에도 종을 딸리기가 또한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께서 관찰사에 하유하여 병이 나은 뒤에 閑地에 두고서 文翰에 관한 일을 맡도록 하다면, 인재를 권면하는 뜻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61]

정유길이 학문과 문장이 뛰어난 오랜 친구 김인후를 위해 명종에게 말한 것이지만, 김인후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김인후는 순창과 장성 향리에서 제자들과 강학을 하며 후학교육에만 전념한다.

---

60) 『河西全集』上, 卷4, 宦海, p.601.
61) 『明宗實錄』권17, 9년 9월 3일(신축)

dCollection @ chosun

자못 술 마시기를 좋아하였으며 술 마신 뒤에는 시를 읊어 뜻을 부쳤다. 일찍이 문인인 양자징에게 楚辭를 가르쳐 주고서 슬픔과 울분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였으며, 宋史 岳飛傳을 읽다가 곧 큰 술잔을 들어 통음하고는 한 絶句를 쓰기를, "지난해엔 楚辭로 가슴에 찬 한일러니/ 오늘 아침 宋史로 눈물이 옷섶 젖네./ 다른 시대 흥망이 나와 무슨 관계랴만/ 자연히 서로 느껴 부질없는 슬픈 노랠." 이라 하고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흐느꼈으니, 그 또한 스스로 엄폐할 수 없어서였다.62)

제자들과 강학을 하다가 비통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마다 멈추고 술을 마시며 시를 지어 자신에 원통한 마음을 풀거나 달랬다. 김인후는 잠시나마 이런 방법으로 세월을 보내지만, 술과 시는 풀 길 없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해 주는 한 가지 수단이었다. 김인후가 술에 취해 미친 행세를 한 것은 기자가 거짓으로 미쳐서 노예가 되어 몸을 보전하였듯, 그도 술에 依托하며 몸을 보전하려고 한 것이다. 관직을 버리고 隱居한 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욕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몸을 보전하는 것이며, 그 몸을 보전하는 것은 바로 그 道와 義를 보전하는 것인 동시에 마지막에는 그 국가를 보전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옛 선조들의 도와 의를 보전하여 국가의 기틀을 보전하려는 그의 衷情이었던 것이다.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를 거치면서 거듭 상처를 입은 사림들은 지방에 은거하면서 地緣, 婚脈, 人脈, 學脈 등을 통해서 서로 결속을 다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시켰다. 김인후의 경우에는 여러 선비들과 왕래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해 가는데, 가끔 태인에 있는 李恒(1499~1576)을 방문하곤 하였다. 이항은 김인후가 찾아오면 술상을 준비하여 그를 매우 반갑게 맞이하였다.

경이 서면 모든 간사함은 물러가는 법	敬立羣邪去
아는 것이 참되면 만리 갖추어지네	知眞萬理該

62) 『河西全集』下, 附錄 卷1, 行狀, p.194.

dCollection @ chosun

마음을 보존할 덴 한 질의 서책 存心書一帙
기운을 기르기론 석 잔의 술에.[63] 養氣酒三盃

둘은 주자와 정자 같은 분들을 칭송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다 서로의 道를 전할 때면 아무리 취기가 올라왔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 서로를 존중해 주었다. 아마도 둘은 술을 마시면서도 서로를 공경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렇게 김인후와 이항은 道義로써 교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연은 김인후의 첫째 아들 종룡과 이항의 딸이 결혼하게 됨으로써 사돈지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李滉(1501~1570)은 성균관에서 김인후와 처음 만났다. 이황은 1523년(중종 18년) 성균관에 입학했다가 귀향하고, 1533년(중종 28년)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김인후와 처음 만나게 된다. 김인후의 명성을 들었는지 이황이 "두 번째 술 들고 와 난간 앞에 대했구려. 찬 구름 해 가리고 싸락눈 내리는데 천년의 고마운 정을 웃고 서로 얘기" 하였다.[64] 또 둘은 1541년(중종 36년) 홍문관에 뽑히게 되자 다른 사람들과 계를 맺어 서로의 우의를 더욱 다지게 된다.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한 후에도 서로의 안부 교환은 계속된다.

오래전에 한 젊은 벗으로 인해 昔年因友生
성화만 듣고 아직 못 뵈었더니 聞風阻趨謁
성 안에서 우연히 이웃이 되어 城中偶卜隣
인사를 드린 적이 겨우 두어 달 拜面才數月
훤출한 솔과 학의 모습으로서 軒昂松鶴姿
세상 맛은 일체 다 버려던졌네 世味堪抹撥
(중략)
남은 일은 단지 읊고 노래하는 것 餘事只吟嘯
초연히 맑은 숲을 마주 대하네 超然對淸樾

63) 『河西全集』上, 卷5, 奉寄李一齋, p.677.
64) 『河西全集』中, 卷6, 贈退叔, p.17.

dCollection @ chosun

바라봐도 더위잡을 길이 없으니 悵望不可攀
벙으러진 楚·越을 시름합니다.[65] 睽携愁楚越

성균관 시절부터 각별했던 이황이 김인후와 마찬가지로 관직에 오래 머물지 않고 외직인 풍기군수를 자청하여 내려오니 그가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한시나 차운시를 이황에게 보내는데, 많은 시를 지어 보낸 것으로 보아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명종 즉위 직후의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는 김인후의 주변 사람들을 유배를 가게 하거나 죽게 만들었다. 유희춘, 노수신, 임형수, 이담, 백인걸 등이 그들이다. 柳希春(1513~1577)은 어린 시절 최산두와 김안국, 같은 스승 아래에서 함께 수학한 사이이다. 둘은 우의가 대단히 깊어 서로 아끼는 마음이 대단하였다. 김인후가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유희춘은 이미 1538년(중종 3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學諭가 되어 있었다. 1540년(중종 35년)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김인후가 오한이 심한 병을 앓고 있을 때 유희춘이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다. 김인후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희춘이 丁未士禍로 인해 귀양을 떠나게 되자, 그를 찾아가 사돈의 의를 맺게 된다.[66] 김인후는 귀양 가 있는 유희춘이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시를 보낸다.

여보소 아름다운 미암 벗님네 有美眉巖子
나를 어찌 이다지도 초조케 하오 胡然使我思
어느 때나 한 자리 함께 앉아서 何當共一榻
책을 펴고 조금씩 갈라 밝힐 수 있을지.[67] 開卷析毫釐

혼란한 시대 때문에 함께 공부하지 못함이 너무나 아쉬워 유희춘을 그리워하며 시를 보낸 것이다. 이 아쉬움들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날

65) 『河西全集』上, 卷2, 敬呈豐基先生, p.181.
66) 백승종,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 돌베개, 2003, p.236.
67) 『河西全集』上, 卷5, 奉和柳眉巖鍾山謫所, p.735.

dCollection @ chosun

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盧守愼(1515~1590)은 김인후와 진사동방이자 사가독서도 같이 한 사이이다. 노수신이 순천과 진도로 유배 갔을 때 여러 차례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다음은 그 중 하나이다.

남방으로 귀양 간 먼 곳 나그네	謫遠天南客
외론 회포 卜生에 부치었구려	孤懷寄卜生
가을 바람 귀뚜라미 제 철 만나라	秋風入蟋蟀
꾀꼬리 울던 봄이 몇 날이더뇨	春日幾倉庚
조정을 하직하니 마음 허전코	去國心應折
눈물 절로 떨어지네 어버이 생각	思親淚自傾
참된 정성 천지도 느낄 수 밖에	精誠天地感
묘한 글구 귀신이 놀래고 말고	妙句鬼神驚
바다 끼어 구름은 섬에 엉기고	際海雲凝島
산 에워 눈은 성에 가득하다오	環山雪滿城
밝은 때라 遺棄되진 않을 터이니	明時知不廢
어느제 웃음 웃고 서로 볼건고.[68]	何日笑相迎

노수신이 羅整庵의 人心道心說을 지지하자 그를 그르다 생각하였다.[69] 하지만 사상적으로 다르다 하여 그를 비판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소중한 옛날 동지라 생각하고 유배 가 있는 벗을 걱정 해 주었다.

林亨秀(1504~1547)는 박상 아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이자 진사동방이며, 사가독서도 같이 받았다. 김인후의 문장이 좋아했던지 "왕왕히 들어보면 그대의 시가 이별의 章에 끼어 전파되는데 내겐 유독 한 말도 주지 않으니 이 뜻은 진정 알기 어렵네 그려." 라며 시를 자주 청하였다.[70] 그래서 김인후는 "내 말이 어려울 게

68) 『河西全集』中, 卷10, 次韻寄穌齋, p.682.
69) 『河西全集』下, 附錄 卷3, 年譜, p.346.
70) 『河西全集』上, 卷3, 士遂將出城, 求別詩, p.207.

dCollection @ chosun

무엇이 있나 그대가 청을 않아 그랬든 거지.”라며 정성스럽게 그를 위한 많은 시들을 지어 주었다.[71] 임형수는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濟州牧使로 좌천되었다가 파면되었다. 정미사화 때는 소윤으로부터 尹任 일당으로 지목받아 유배되었다. 유배지로 떠나는 임형수에게 “가을이 깊어가니 沙渚는 멀고 성 예스러워 나무그늘 성글다오. 만리라 그대 행차 늦게 떠나니 서릿바람 이별의 옷깃 날리네.”라며 마음을 달랬다.[72] 하지만, 임형수가 유배지에서 賜死되자 복받치는 설움을 이기지 못해 “엊그제 베인 나무 백 척 장송 아니던가 적은 듯 두었던들 동량이 되리러니 이후에 명당 기울면 어느 나무가 받치리”라며 통곡하였다.[73]

李湛(1510~1575)은 을사사화 때 파직되고 정미사화에 연루되어 梁山에 유배되었다. 김인후와 동갑인데다 “과거 또한 同榜이 아니었던가. 더더구나 進士의 동방이라서 너 댓 사람 이름 서로 연 대어 섰지. 이 때문에 더욱 더 친하게”지냈다.[74]

김인후가 은둔하여서는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벗들이 직접 찾아와 주기도 하였다. 金瀷(1504~?)은 성균관시절 공부하다 헤어진 후 순창에 있던 김인후를 찾아왔었다. 찾아온 김익에게 “지나간 을사년에 서로 헤어져 이제껏 가을이 꼭 아홉 번 갔네. 술 들어 병든 나를 위로해주니 근력 좋은 그대가 부럽군 그래”하였다.[75] 朴素立(1523~1589)도 성균관에서 작별한지 “스무 해라 이전에 만난 그 얼굴 금년 가을 중구에 잔 마주 드네. 단풍잎 비단보다 한결 나으니 이곳에서 한동안 놀다나 가세.”라며 순창에 찾아온 그를 반겨주었다.[76]

李宗元(16세기) 같은 경우는 “젊을 적엔 동향의 친분 맺었고 중년에는 동방에 이름 나란히. 성균관에선 옷섭을 함께”맞대었다. 젊었을 때 같은 고향친구이자 사마시에 나란히 합격한 진사동방이며, 성균관에서 같이 유학하게 되면서 더욱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김인후가 은둔한 뒤로는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가시

71) 『河西全集』上, 卷3, 士遂將出城, 求別詩, p.207~208.
72) 『河西全集』中, 卷8, 送士遂關西之行, p.278.
73) 『河西全集』下, 續編, 悼林士遂寃死作短歌, p.396.
74) 『河西全集』上, 卷3, 贈李仲久, p.432.
75) 『河西全集』中, 卷8, 贈金載淸, p.336.
76) 『河西全集』上, 卷5, 贈朴內翰, p.704.

dCollection @ chosun

사립 손수 늘 두들겼느니 술에 노닐면 실컷 취해야 말고 망언하면 회담 조롱” 뒤섞어 농담도 잘 주고받았다.[77]

金禧年(16세기)도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이다. 김희년이 서울에서 고향 영남지방으로 험난한 길을 떠나자, 그의 여정 길을 걱정하며 다시 올라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후에 김희년은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귀양 갔다가 다시 풀려나 벼슬을 하게 되었을 때, 서울에 있었던 그는 김인후가 있는 장성까지 그 먼 길을 찾아와 주었다.[78] “외길 밖에 모르는 盆城子라서 오며가며 전송 마중 기뻐하누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나자 이별이라 아쉬운 대화 돌아보니 슬픈 정이” 감돌곤 하였다.[79]

전라도 지방관으로 내려온 사람들과도 교유하였다. 김인후가 옥과현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宋麟壽(1487~1547)가 1544년(중종39년) 全羅監司로 내려오게 되자 그와 절친하게 지냈다. 언제인가 송인수가 업무 수행 차 장성에 오자 직접 찾아가 반갑게 맞이해 주기도 하였다.[80] 얼마 후 송인수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그를 직접 찾아가 작별의 인사도 나누었다.[81] 김인후가 낙향하여 순창과 장성에 있었을 때, 이도사라는 친구가 全羅都事로 내려왔다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직접 찾아가 작별인사를 나누었다.[82] 장성과 순창의 수령들도 김인후를 자주 잔치에 초대하였고, 술・생선・보리쌀 등과 같은 선물을 보내 주기도 하였다.[83] 이렇게 지방관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향촌사회의 통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84]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김인후는 은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교유하였다. 김

---

77) 『河西全集』中, 卷9, 挽李仁仲, p.454.
78) 『明宗實錄』권11, 6년 6월 1일(무오)
79) 『河西全集』中, 卷8, 次盆城金慶老韻, p.311.
80) 『河西全集』中, 卷6, 長城客館 敬次圭庵 相公韻, p.24.
81) 『河西全集』中, 卷10, 龍城奉別圭庵相公, p.527.
82) 『河西全集』中, 卷10, 送李都事還京, p.525.
83) 백승종, 앞의 같은 논문, p.118.
84) 김인후는 고장의 행정에 공식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향촌사회의 중요한 일에 참여하면서 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런 현상을 백승종은 정치활동의 특이한 양태인 '일상의 정치'라 하였다. 백승종,「16세기 조선의 사림정치와 김인후 : 비정치적일상의 정치성」,『진단학보』92, 2001. 참조.

dCollection @ chosun

인후는 “사람의 일이란 변천이 있고 기회란 무상한 것인즉, 혹 亂世가 변해서 治世가 되고 화가 돌아가서 복이 되는 경우라면 나는 모르겠네. 천하의 책임을 맡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라며 난세가 변하여 치세가 되는 그날, 천하의 책임을 맡아서 이루지 못한 왕도정치를 펼쳐야 할 의무가 묵묵히 도와 의를 보전하여 온 자신과 사림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85] 난세가 변하여 치세가 되는 그날을 그들과 함께 준비한 것이다.

3. 교육활동

중종 14년(1519)의 기묘사화는 사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대부분 중앙의 관직에서 축출되었다. 그 이후 지방에 은거하여 제자들의 강학에 열중하게 되면서 성리학의 이론적 깊이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고,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되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 문하에서 성장한 제자들이 16세기 성리학풍을 주도하게 되는데 김인후도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종 후기에는 지방에 있던 사림들이 다시 관직에 진출하여 중앙에서 활동하게 되지만 인종의 갑작스러운 昇遐와 명종의 즉위에 이은 乙巳士禍(1545)・丁未士禍(1547)는 이들을 중앙에서 밀려 지방에 은거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지방으로 돌아온 이들은 書院制度에 주목하여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기반을 다졌다.[86]

그리하여 김인후도 인종이 승하하자 그해 7월에 관직을 버리고 장성으로 낙향해 버린다.[87] 그 이듬해인 38세에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나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는다. 39세에는 외가와 처가가 있는 순창군 쌍봉면 둔전리 점암촌으로 거처를 옮기고 訓蒙齋라는 草堂을 지어 강학하며 제자들을 가르친다.[88] 김인후의 문하에서 수업한 제자로는 趙希文, 梁子澂, 申覺, 卞成溫, 卞成振, 奇孝諫, 李至男,

85) 『河西全集』下, 卷12, 佯狂爲奴論, p.136.
86)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p.273.
87) 인종의 죽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진웅, 『仁宗昇遐와 金河西 節義』, 명성출판사, 1996. 참조.
88) 『河西全集』下, 附錄 卷3, 年譜, p.338.

dCollection @ chosun

南彦紀, 盧適, 徐台壽, 金啓, 邊以中, 尹箕, 金齊顔, 安瑨, 金澄, 朴元恂 등이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인후는 '下學上達'의 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 제자들에게 항상 일상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일상생활 사이에 도는 들어 있는 거라	道在尋常日用間
성현의 만든 법에 진실은 볼 수 있네	聖賢成法儘堪看
참 옳음과 참 그름을 진실로 알아야만	眞知眞是眞非處
나가는 길 정하기에 어려움을 보지 않아.[89]	立定前行不見難

또 김인후는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배워 나가는 공부순서를 강조하여, 문인들에게 주자의 工夫論에 따라 가르쳤다. 제자들에게도 "모든 經 다 좋지만 급히 보기 어려우니 공부 있게 하자면 건너뛰어 되오리까. 근기를 안 다지고 집 먼저 짓는다면 한 때의 겉보기는 우뚝하여 좋을 테지."라며 반드시 『小學』을 먼저 읽고 다음에 『大學』을 읽어 가장 중요한 근본을 세운 후 다른 책을 공부하도록 하였다.[90] 김인후는 "『대학』을 사람마다 천근하게 보지마는 聖功은 이 아니면 강구하기 어렵다네. 마디마디 공부든 걸 알아야 하다마다. 익히 읽고 정히 생각 허소하게 보지 마소."라며, 특히 『대학』을 중요시 여겨 『대학』 강학하는 데 힘을 쏟았다.[91] 梁子渟에게 『大學或問』과 『太極圖解』를 가르쳤고, 李至男과 鄭澈에게도 『대학』을 가르쳤다. 특히 김인후와 정철이 함께 『대학』을 강론하던 바위는 '大學巖'이라 불려 지기도 한다.[92] 때로는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여 양자징은 『宋史』「岳飛傳」, 이지남은 『楚辭』「離騷經」등을 배웠다.[93]

89) 『河西全集』中, 卷6, 吟示景范仲明, p.99.
90) 『河西全集』中, 卷6, 吟示景范仲明, p.97.
91) 『河西全集』中, 卷6, 吟示景范仲明, p.96.
92) 『河西全集』下, 續編外錄 卷1, 年譜別本, p.732. 하지만 정철이 16세 이후에야 호남지역에 入鄕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간행된 庚辰續集에는 13세 때 김인후와 師弟之義를 맺은 것으로 되어 있어 순창 訓蒙齋에서 수학한 일과 大學巖에서 대학강의를 받은 일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松江文集의 年譜에도 그 사실이 나타나 있다.

dCollection @ chosun

김인후는 제자들에게 『소학』을 먼저 읽고 다음에 『대학』을 읽는 것을 학문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닦아서 마음에 내재된 인간의 善性을 자기와 物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94] 다음 시에 김인후의 뜻이 잘 나타나 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所以貴吾人
다른 곳에 있지 않다네	不在於他途
자기를 이루고 物을 이루기 위해	成己與成物
수용하는 공부를 닦아나가세	工夫自相須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히 서서	卓然立兩間
參贊하게 되어야 참으로 良圖라네.[95]	參贊眞良圖

김인후 아래에서 수학한 제자들은 자기를 이루고 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학문에 목표로 삼았다.

김인후는 성리학적인 수양이론을 계승하여 敬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다.[96] 그는 "敬이란 志慮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수렴하여 본원을 함양하는 도리이다." 라며 인간 본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敬에서 찾았다.[97] 인간의 마음이 敬을 통하여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천하가 和平해 질 것이라고 제자 趙希文(1527~1578)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리의 길머리엔 사생을 결단해야	義利途頭決死生
진지와 실천으로 업은 능히 정해지네	眞知實踐業能精
모름지기 명선이라 성신을 배워 나가	須從明善誠身學
경을 주로 삼는 날에 천하는 화평하리.[98]	主敬終成天下平

93) 『河西全集』下, 附錄 卷1, 家狀, p.176.
94) 안동교,「하서선생의 강학활동과 문인양성」, 필암서원 산앙회 학술강연 발표요지, 2007.
95) 『河西全集』上, 卷2, 題敬岑上人卷端, p.162.
96) 『河西全集』上, 卷首, 御製賜祭文, p.4.
97) 『河西全集』下, 卷11, 與盧寡悔論夙興夜寐箴解別紙, p.38~45.
98) 『河西全集』中, 卷6, 景范次尊韻,余又答之, p.76.

dCollection @ chosun

김인후의 제자이자 첫째 사위인 조희문은 성리학의 조예가 깊고 글 솜씨가 상당히 뛰어나 1553년(명종 8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평생 誠과 敬의 실천을 학문에 목표로 삼고 스승의 학설을 계승, 발전시켜 나갔다. 김인후가 죽자 스승의 유고를 수집하여 팔년 만에 문집을 간행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하였다.[99]

김인후는 인간의 일상과 마음인 인심이 위태하고, 하늘의 뜻을 좇아가는 도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공평하고 일관된 자세와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제자 梁子澂(1523~1594)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준다.

세 성인이 서로 전한 요지를 보면	三聖相傳授
그 中을 잡으라는 말씀만 했네	惟言執厥中
위태롭고 가느다란 정일의 위로	危微精一上
끊임없이 정진하여 더욱더 공을 들여야.[100]	進進益加功

인간이 쉽게 욕망에 빠져 하늘의 이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항상 中和와 公正의 마음으로 만물을 대하면 성인의 가르침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101] 제자이자 둘째 사위였던 양자징은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순창에서 병든 김인후를 그의 아내와 함께 정성껏 보살펴 드렸다.[102] 김인후도 양자징에 대한 사랑이 깊어 언제인가 벼루를 선물로 주었고, 그는 이 벼루를 보배처럼 고이 간직하였다.[103]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자징의 아내가 첫아이를 낳고 몸져누워 세상을 떠나자,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딸을 여윈 스승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는지 그는 김인후를 자주 찾아뵈어 술자리를 가지곤 하였다.

卞成溫(1530~1614)은 김인후가 낙향하자 제일 먼저 나아가 수학하였으며 스승이 『小學』을 주자, 성인의 모범이 이 책에 있다면서 모든 언행을 『小學』에 근거하였다.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壺巖에 은거하며 학문에 힘썼는데, 스승이 죽자

99) 『河西全集』上, 卷首, 河西先生全集舊序, p.24~29.
100) 『河西全集』上, 卷5, 梁季明因仲明求寫詩書正文題目, p.710.
101) 이종범,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p.129.
102) 『河西全集』上, 卷5, 喜梁甥來, p.727.
103) 『河西全集』下, 續編附錄, 河西先生所贈硯識, p.700.

dCollection @ chosun

이황을 찾아뵈어 김인후의 글을 보여주기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1556년(명종 11년) 변성온이 같은 고을에 사는 안서순의 상소문을 옮겨 적는 것을 도와주어 안서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행히 관련자들이 모두 입을 굳게 다물어 김인후가 화를 피할 수 있었다.[104] 卞成振(16세기)은 변성온의 동생으로 이황 문하에도 왕래하면서 경전에 대해 강론하였다. 명종 말에 간사함과 정직함을 구분하여 이치를 밝히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선조 대에는 天命과 人心의 오고 감과 군자·소인의 진퇴 幾微, 궁궐일의 엄하지 않음과 戚里들의 진중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려 선조가 가상하게 여겨 참봉으로 임명하였으나 병으로 사양하였다.[105]

申覺(16세기)은 기개와 도량이 엄숙하고 행실이 독실하여 김인후의 깊은 신임을 받았다. 그는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고 평생 은거하며 학문에 종사하였으며, 문집을 간행할 적에 양자징과 교정보는 일을 담당하였다. 李至男(16세기)은 본래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인 李彦忱이 丁未士禍로 인해 좌천되어 순창군수로 오게 되자 점암촌에 있던 김인후를 찾아가 『小學』·『大學』·『離騷經』 등을 수학하였다. 吳健(1521~1574)은 1552년(명종 7년) 진사를 거쳐 1558년 식년문과에 급제, 1567년 正言을 거쳐 1571년(선조 4년) 吏曹佐郎으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고 『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했었다.

南彦紀(1534~?)는 1568년(선조 1년) 生員試에 합격하였고, 학행이 뛰어나 선조 초 영의정 李鐸의 천거로 童蒙敎官·氷庫別坐에 채용하려 하였으나 사양하였다. 同福縣 沙坪村에 누정을 짓고 선비들과 학문을 토론하였으며 시와 문장에 뛰어났고 글씨도 잘 썼다. 魯適(16세기)은 어려서 김인후에게 수학하여 학식과 품행이 뛰어난 제자였다. 그는 1583년(선조 16년) 敎官이 되고 얼마 후 大君師傅가 되었다. 徐台壽(16세기)는 1583년(선조 16년)에 三司와 政院, 그리고 吏曹가 간사한 무리들의 소굴이 되고 있다고 하여 속히 威譴을 보임으로써 시비를 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상소와[106] 동서 갈등이 심해져 李珥가 동인의 공격을 받자 그를 적극

104) 『明宗實錄』 권20, 11년 5월 11일(무진)
105)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p.166.

dCollection @ chosun

옹호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107] 1590년(선조 23년) 筆巖書院이 건립될 때 春秋 釋菜 축문을 그가 썼다.[108]

金啓(1528~1574)는 1552년(명종 7년) 문과에 급제하여 司諫院獻納을 지내고 후에 吏曹參判에까지 올랐다. 그는 이황, 이이, 기대승, 정철 등과 도학을 강론할 만큼 학문이 깊었다. 邊以中(1546~1611)은 長城 출생으로 邊澤의 아들이다. 1568년(선조 1년) 司馬試에, 1573년(선조6 년)에는 大科에 급제 한 후 내·외직을 역임하고,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召募御史가 되어 병마와 무기를 갖추고 수원에 주둔, 경기도 지방에 침입한 적과 싸웠다. 1605년(선조 38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연구와 향촌 교화에 힘썼다.

奇孝諫(1530~1593)은 奇大有의 아들로 幸州奇氏 집안은 김인후와 같은 장성 고을 안에서 친하게 지내는 집안이었다. 당숙인 기대승에게도 학문을 배웠고, 일생을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념하여 호남의 隱德君子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김인후와 집이 가까웠던 奇大升(1527~1572)은 김인후를 자주 찾아왔었다. 김인후보다 19살 아래인 기대승이 성리학의 조예가 깊으면서도 말년인 자신을 찾아와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이 고마워서인지 그가 찾아오면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린 시절 신동이라 불리던 김인후가 말년에 분석적이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기대승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을까? 회한과 강개로 보낸 지난 세월을 기대승 덕분에 다 날려 보내는 듯 했을 것이다.[109] 그래서 만나고 헤어질 때면 아쉬움이 커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짓기도 하였다.

서로 만나면 노상 정담을 못 다하니	相逢每未盡情談
이별하면 유유히 남쪽으로 눈이 가네	別後悠悠目送南
더더구나 달 밝고 서리 이슬 내리는 밤	且況月明霜露夜

106) 『宣祖實錄』권17, 16년 8월 23일(임신)
107) 『宣祖修正實錄 』권17, 16년 8월 1일(경술)
108) 『河西全集』下, 附錄 卷2, 筆巖書院春秋釋菜祝文, p.252.
109) 이종범,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p.123.

dCollection @ chosun

다시 그대 생각에 잠 못 드니 그리움 어찌 견디리까.[110] 度更無寐思何堪

기대승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승과 이황의 사단칠정에 관한 논쟁에 김인후가 깊이 관여 하면서 더욱 커졌다.[111] 김인후에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이유 때문인지 후에 기대승의 큰딸은 김인후의 손자며느리가 되었다.

사제관계는 아니지만 白光弘(1522~1556)과는 뜻이 잘 맞아 절친하였다. 백광홍은 김인후의 선배이자 사돈인 이항의 제자였는데 어려서부터 문장이 아주 뛰어났다. 비록 김인후보다 12살이나 적은 나이였지만 둘은 친구처럼 지냈다.[112] 김인후가 순창 鮎巖村에 寓居하고 있을 때 "병들어 누운 하서를 더위 철에 찾아와" 주었다.[113]

이와 같이 김인후는 많은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후배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은둔하여 후진 양성에 힘을 쏟는 모습으로 척신정치에 비협조적인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제자와 후배들도 몸과 마음을 닦는 데에만 몰두하며 어지러운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아마 김인후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난세가 가고 치세가 올 날이 멀지 않았음을 조심스럽게 기대하였을 것이다.

---

110) 『河西全集』中, 卷7, 寄高峯, p.240.
111) 기대승이 김인후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에 대하여는『河西全集』下, 續編外錄 卷2, 年譜別本, p.757. ;『河西全集』下, 續編外錄 卷3, 奇謙齋集論四七說辨, p.772~775. ;『河西全集』下, 續編附錄 , 正祖弘齋全書抄錄, p.623. 참조.
112) 백승종, 위의 같은 책, p.224.
113) 『河西全集』中, 卷6, 和白大裕, p.107.

dCollection @ chosun

Ⅳ. 맺음말

16세기는 훈구파와 사림파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사화를 거치면서 사림들에 의해 조선의 성리학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시기였다. 김인후는 이러한 시기에 기묘사림의 지도아래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 인물이었다.

中宗反正 이후 새롭게 등장하면서 趙光祖를 중심으로 한 己卯士林들이 점차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기묘사림은 중앙정치에서는 『大學』에서 제시된 도덕정치를 구현하고, 향촌사회에서는 『小學』에서 제시된 향약적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모순을 극복하려 하였다. 조광조는 군주가 통치에 앞서 수신을 통해 덕을 닦는 일에 힘써야만 왕도정치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묘사림의 학문을 계승한 사림들은 그 어떤 좋은 개혁도 군주가 현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학문인 聖學, 즉 帝王學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론적 기반이었던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김인후는 기묘 인사들과 가까운 사이였기에 자연스럽게 대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주자의 공부론을 그대로 계승하여 '小學-大學 階梯說' 이라는 사다리와 같은 공부론을 주장하였다. 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배워 나가는 '下學上達' 의 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에도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당시 사림들은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이상사회의 근본이라 보고, 부패한 훈구세력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또 잘못된 역사가 있으면 그에 대한 비판을 가하여 과거사를 정리하고 화해하기 위한 역사운동을 추진하였다. 김인후도 벼슬길에 들어서자 무엇보다도 당시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동궁의 화재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기묘사화에 억울하게 희생된 선비들의 죄를 씻어 달라는 차자를 올렸다. 또 어두운 과거를 추모하는 역사운동의 일환으로 선조를 받들고 제사

dCollection @ chosun

를 보존하기 위한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선조라고도 할 수 있는 스승들을 받드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였고, 8개월 만에 승하한 인종을 위해서도 매년 기일에 되면 장성 집 앞 남쪽에 있는 난산에 들어가 한없이 통곡하고 돌아오곤 했다.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를 거치면서 거듭 상처를 입은 사림들은 지방에 은거하면서 지연, 혼맥, 인맥, 학맥 등을 통해서 서로 결속을 다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시켰다. 김인후도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여러 조직에 소속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어린 시절 수학한 스승, 호남에서 교유했던 선비, 동문수학하면서 사귄 벗, 과거시험장에서 친해진 선비, 성균관에서 교유했던 사람, 진사·문과 동방, 여러 계의 구성원들과 같은 실로 수많은 인연들을 통해 강력한 인간적 유대관계를 만들었다.

김인후는 인종이 승하하자 옥과현감을 사퇴하고 장성으로 낙향하였다.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지만 거절하고, 순창과 장성 향리에서 제자들과 강학을 하며 후학교육에만 전념한다. 김인후의 출처에 대해 후세의 많은 선비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栗谷 李珥(1536~1584)는 안개 가득 찬 중종말기에서 명종중기까지의 20년 기간에 김인후만이 出處가 분명하였다며 "맑은 물에 핀 연꽃과 같고 비갠 뒤 맑은 바람 속의 밝은 달과 같다. 출처가 올바르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후세 선비들의 모범이 될 만한 출처라고 칭송하였다.[114]

김인후가 술에 취해 미친 행세를 한 것은 箕子가 거짓으로 미쳐서 노예가 되어 몸을 보전하였듯, 그도 술에 의탁하여 몸을 보전하려고 한 것이다. 몸을 보전하는 것은 그 道와 義를 보전하는 것인 동시에 마지막에는 그 국가를 보전하고자 한 것이다. 죽는 날까지 도와 의를 지킴으로써 척신정치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국가의 기틀을 끝까지 보전하려는 김인후의 진심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제3장에서 살펴 본데로 그가 수많은 사람들과 강력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낙향하여 후진양성에 힘을 쏟은 것은, 난세가 변하여 치세가 되는 그날을 그

114) 『正祖實錄』 권29, 14년 3월 22일(임인)

dCollection @ chosun

들과 함께 묵묵히 준비하고자 함이었다. 언젠가는 요순과 같은 왕도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김인후는 죽는 날까지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참고문헌

1. 자 료

『高峯集』

『論語』

『孟子集註』

『松江文集』

『燃藜室記述』

『朱子大全』

『朝鮮王朝實錄』

『退溪全書』

『河西全集』

조선왕조실록CD-ROM간행위원회, 『(국역)조선왕조실록(컴퓨터파일)』, 서울시스템. 199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역)하서전집(컴퓨터파일)』, 서울시스템, 2003.

2. 저 서

고영진, 『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_____,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광주광역시 향토개발협의회,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1995.

금장태, 『조선전기의 유학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김 돈,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김우기, 『조선 중기 척신 정치 연구』, 집문당, 2001.

김진웅, 『인종승하와 김하서 절의』, 명성출판사, 1996.

김필동, 『차별과 연대-조선사회의 신분과 조직』, 문학과 지성사, 1999.

김항수, 『조선 전기의 성리학』, 한길사, 1994.

백승종,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 돌베개, 2003.

유명종, 『한국사상사』, 이문출판사, 2001.

dCollection @ chosun

윤사순, 『한국 유학 사상사론』, 열음사, 1986.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이병휴, 『조선 전기 기호사림파 연구』, 일조각, 1986.
_____,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이종범,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이태진, 『조선 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지두환,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역사문화, 1996.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 연구』, 일조각, 1994.
하서기념회,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1(1994), 2(2000), 3(2005).

3. 논 문

김 돈, 「중종대 언관의 성격변화와 사림」, 『한국사론』10, 1984.
김 범, 「조선 중종대의 역사상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사학보』17, 2004.
김용흠, 「조선전기 훈구·사림의 갈등과 그 정치사상적 함의」, 『동방학지』124, 2004.
김항수, 「16세기 사림의 성리학 이해 : 서적의 간행 편찬을 중심으로」, 『한국사론』7, 1981.
김항수, 「조선 전기 '심경'의 이해와 보급」, 『한국문화』18, 1996.
김훈식, 「16세기 군신윤리의 변화와 출처론」,『역사와 현실』50, 2003.
박연호, 「주자학의 근본배양설과 조선 전기의 '소학'교육」, 『청계사학』2, 1985.
백승종, 「16세기 조선의 사림정치와 김인후 : 비정치적일상의 정치성」, 『진단학보』92, 2001.
송웅섭, 「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배경」, 『한국사론』45, 2001.
에드워드 와그너(이훈상 옮김), 「1519년의 현량과」, 『역사와 경계』42, 2002.
윤사순,「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이병휴, 「현량과 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12·13, 1977.

dCollection @ chosun

이종범, 「점필재 김종직의 내면세계와 초기 사림파」, 『동양한문학연구』28, 2009.
이태진, 「16세기 사림의 역사적 성격」, 『대동문화연구』13, 1979.
이해준, 「기묘사화와 16세기 전반의 호남학맥」, 『전통과 현실』2, 1991.
정익섭, 「호남 시가단에서의 하서 김인후의 위치」, 『동양학』17, 1987.
최영성, 「하서 김인후의 학문과 출처관」, 『동양고전연구』12, 1999.
최이돈, 「16세기 사림파의 천거제 강화운동」, 『한국학보』15, 1989.

dCollection @ chosun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역사교육	학 번	20058238	과 정	석사,박사
성 명	한글:유 병 연 한문:劉 炳 淵 영문:Yoo Byung Yeon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라인A 204동 201호				
연락처	E-MAIL : yoo4177@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하서 김인후의 학문과 출처 영어 : Haseo Kim In-Hu's Learning & Obtaining and Retiring from the Public Offic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09년 7월 10일

저작자: 유 병 연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dCollection @ chosun